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하정선(河貞善)**

김영근(金泳根)***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는 서울과 경남 지역의 여자 고등학생 4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 정서, 정서조절 곤란 및 이상섭식태도 척도를 사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자 고등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 이상섭식태도, 부적 정서,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곤란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적 정서, 정서조절곤란, 이상섭식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이상섭식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 정서는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함의가 제시되었다.

주요어 :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 정서, 정서조절곤란,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 매개효과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 및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 제1저자, 경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박사과정

*** 제2저자, 교신저자,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조교수, ykkim@inje.ac.kr

I. 서론

섭식(eating)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때로 자신의 의지와 불만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섭식을 거부하기도 하여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김정옥, 2000). 인간은 섭식으로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될 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발달 단계이며 건강한 섭식행위는 이 시기의 청소년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하지만 날씬함을 강조하는 사회와 대중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은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받고(장희순, 2004) 마른 몸매를 갖기 위하여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섭식행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지니게 되었다(남상인 외, 1993).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교육부, 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생 중에 살빼기를 시도하는 학생의 수는 3명 중 1명에 해당되며 그 중 남녀 비율을 보면 여학생의 수는 남학생의 두 배에 가까웠다. 여학생 중 18.5%는 이뇨제, 구토, 절식, 단식과 같은 부적절한 방법을 시도하여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신체발달을 성취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리한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섭식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김규민, 2000). 섭식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10배 정도 많이 나타나고(Burt & Hendrick, 2005) 보통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장애 발병의 평균 연령은 17세로 90% 이상이 여성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고(APA, 2000) 식품의약품안전처(2010)에 의하면 여고생 10명 중 1명이 섭식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을 보였다. 이에 여자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섭식장애로 발전 가능한 역기능적인 다이어트를 지양하고 올바른 섭식행동을 위한 예방교육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다양한 변인의 탐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섭식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다룬 선행연구의 주제로 섭식태도, 섭식행동, 섭식장애, 식이장애 등이 다양하게 논의된 바 있다. 섭식태도는 정상적인 섭식태도에서부터 체중이나 섭식에 대한 무관심, 섭식 절제, 폭식을 거쳐 신경성 식용부진증이나 신경성 폭식증 등과 같은 임상증후군에 이르는 섭식장애의 연속선상의 개념으로서 섭식장애의 발현에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Mintz & Betz, 1988; 황미진, 2007). Striegel-Moore, Silberstein과 Rodin(1993)은 섭식태도검사에서 고득점 여성이 섭식장애의 준 임상적 장애를 경험하거나 섭식장애의 임상단계 전에 있다고 밝혔으며 본 연구가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주제로 섭식장애의 전구증상으로서의 이상섭식태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의 변인으로 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비록 일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섭식장애와 관련된 여러 변인에 관하여 수행되었고 사회문화적 요인(이은주, 2009), 개인의 내적 요인(이은주, 2009; 김기덕, 2007) 및 성격적 특성(임지영, 2009) 등이 포함되었다.

개인적인 변인으로는 마르고 날씬한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문화적 압력 혹은 자아상에 대한 인지왜곡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김정연, 2011; 신미연, 이정운, 2012) 개인이 경험한 신체적 학대(Mazzeo & Espelage, 2002; 김정안, 2012) 및 정서적 학대(Mills, Newman, Cossar, & Murray, 2015) 등 가족의 기능과 영향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으로 가족의 기능(정영선, 2005), 부모 자녀와의 관계(황미진, 2007), 모녀 관계(공성숙, 현명선, 2002), 특정한 형태의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태도 등이 연구되었다(Polivy & Herman, 2002). 정영선(2005)은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양식과 자녀의 섭식행동을 연구하였고 Minuchin, Rosman과 Baker(1978)는 거식증을 지닌 내담자의 가족은 감정 표현이 적고 갈등을 회피하거나 밀착이 심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알려진 바대로 사춘기 여자 청소년의 거식증은 밀착된 가족으로 부터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전제와도 일치한다. 또한 임상 및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폭식증을 겪고 있는 여성은 부모로부터 높은 수준의 통제와 침해 및 과보호를 경험했음이 나타났다(Palmer, Oppenheimer, & Marshall, 1988).

한편, 최근의 연구 동향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모의 지지와 통제로 범주화 하고 그 중 부모의 통제는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더욱 세분화 되었다.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과 행동에 관심을 갖고 적절히 규제하여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는 반면(Barber, Olsen, & Shagle, 1994),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내재화 문제 같은 자녀의 부정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주 대두 되고 있다(Barber & Harmon, 2002; Barber, Stolz, Olsen, Collins, & Bruchinal, 2005; 박성연, 이은경, 2011; 현지은,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자녀에게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애정을 철회하고 사고와 감정의 표현을 제한하는 심리적 조종과정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방해하는 교묘한 유형의 통제로 정의 되었다(Barber, 1996). 이는 부모가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제약하고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으며 사소한 잘못에도 과도하게 처벌하여 부모의 의도대로 자녀를 순응하도록 미묘하게 작용하는 조건적 승인에 해당된다. 특히 우리의 가족 문화를 살펴보면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 부모 자녀관계의 동일체 의식을 강조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개별성과 자율을 부모로부터의 분리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애착을 강요하는 등(우미경, 박영신, 2012) 자녀가 완전하게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할 때까지 과보호하고 정서적 영역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 걸쳐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은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독립성의 발달과 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방해 받고(Barber & Harmon, 2002),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타인의 지배를 받는다고 지각하며 자기개념과 자기인식 발달에 어려움을 느낀다(Barber, 1996). 이들은 우울, 불안, 외로움, 자기 비난, 낮은 자아존중감, 완벽주의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인, 2010; 조은주, 이은희, 2013; Soenens et al., 2008; 박성연, 이은경, 2011; 우미경, 박영신, 2012). 반면 심리적으로 자녀를 통제 하는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요구에 반응적이지 않고 비일관적인 감정기복을 보이기도 하였고(안명희, 2010)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욕구보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심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자녀의 심리적 현실을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이경희, 2015). 그 결과로 사춘기 자녀는 정서의 수용이나 이해, 자율적인 정서 발달과 심리적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에 있어 손상이나 실패로 이르게 한다. 정윤주(2004)는 부모의 지나친 심리적 통제로 인하여 사춘기 자녀는 우울, 불안 등의 부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하에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경우 부모에게 수용받지 못하고 관계가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정서의 억제를 경험하는 등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며(김혜영, 1999) 내재화된 문제로 대인관계에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01; 이하연, 2014; 김현아, 2015).

부적 정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해로운 상황에서 대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그 대상을 거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다양한 적응에 있어 역기능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많다. 부적 정서는 불안, 우울, 분노, 경멸, 죄의식, 공포와 같은 혐오적 정서 상태를 동반한 불쾌감과 주관적 고통을 말하는 것으로(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그 중에서 우울은 판단, 지각, 기억, 인지 사고 및 태도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이다(Beck, 1967). 청소년기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울이 발생하기 쉽고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은 내재화된 문제 행동 중 섭식장애, 공황, 신체화 장애 등 신체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영신, 공성숙, 2004). 부적 정서 중 불안은 우울과 더불어 많은 정신병리와 매우 연관이 높고(최진숙, 조수철, 1990) 우울과 불안이 여대생의 이상섭식태도와 관련이 있으며(정희진, 이종숙, 2011) 폭식행동을 보이는 경우 매우 높은 우울수준을 동반 하는 연구의 결과가 있었다(McCabe & Vincent, 2003).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내외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청소년이 우울과 불안, 분노를 포함한 부적 정서를 경험하며 그들의 부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대처로 이상섭식태도를 보이는 연구의 결과(조소현, 2004)에 근거하여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부적 정서를 주요 변인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폭식 등 섭식태도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는 널리 알려진 부정적 정서모델로서(Stice & Agras, 1999; 권석만, 2013) 폭식 행동의 발생과 유지의 요인으로 지지받는데, 이는 부적 정서가 많은 사람은 폭식행동에서 위안을 얻고 혐오적 자극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성급하고 비계획적인 대처방법으로 폭식행동을 한다고 보고한다(전주리, 2011; 박지현, 2013; Heatherton & Baumeister, 1991). 이미현(2009)은 폭식행동과 관련하여 부적 정서와 폭식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써 정서조절곤란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고 부적 정서가 통제 되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 Svaldi, Griepenstroh, Tuschen-Caffier와 Ehring(2012)은 연구에서 섭식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서 강도가 높고 정서의 수용, 자각 및 명료성이 낮았으며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Whiteside 등(2007)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폭식행동에 영향력이 큰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정서의 이해 및 자각, 수용, 조절전략의 한계가 폭식행동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폭식행동은 부적 정서와 대표적인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 중 하나로 폭식을 선택하는 등 정서조절 전략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폭식행동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Wiser & Telch,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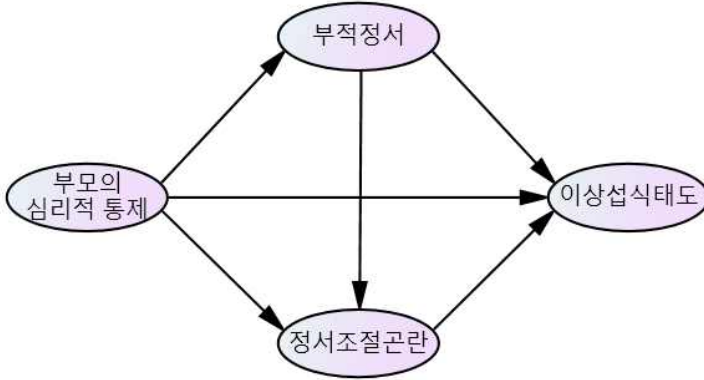
정서조절이란 자신의 정서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에서 정서가 자극되었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여 균형감을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 즉 정서, 인지, 행동적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적인 삶을 보다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alovey & Mayer, 1990; Thompson, 1994).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기능적일 경우 개인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며 그 개인의 목표에 일치하도록 행동할 수 있다.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결핍될 경우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서조절곤란이 발생하는데(Gratz & Roemer, 2004)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은 Linehan(1993)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주요한 특징으로 정서조절곤란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정신병리의 발생과 유지 및 치료에서 정서조절과 정서조절곤란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Barlow, Allen과 Choate(2004)는 불안장애와 우울 같은 정서장애를 이해하는데 있어 특히 정서조절곤란을 강조하였으며 미래의 치료는 정서조절곤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여러 정서조절 기술을 습득하여 정서조절능력이 향상되어 정서를 수용할 수 있게 될 때 심리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영근, 김창대, 2015; Fosha, 2000; Greenberg, 2002; Gross, 1999; Omaha, 2004).

정서조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할수록 자녀가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을 사용하여 우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지만(김소아, 강민주,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변인인 정서조절곤란 또한 매개역할로 유추하여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반 여자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섭식장애의 전구 증상으로 예측 가능한 이상섭식태도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 곤란의 두 매개 변인에 관한 경로는, 부적

정서가 자기조절 및 부정적 정서조절을 방해하여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소원현, 2009; 이상선, 2007)와 부적 정서를 경험한 개인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느껴 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주장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가정하였다(이미현, 2009).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매개변인 중 부적 정서가 정서조절 곤란을 통해서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연구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6년 4월-5월에 걸쳐 서울과 경남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70부를 학급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하였고 그 중 수거한 536부 가운데 편부모 가정의 자녀, 문항 누락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68명을 제외하고 총 468명의 자료로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199명(42.5%), 2학년이 84명(17.9%), 3학년이 185명(39.5%)이었다.

2. 연구 도구

1) 이상섭식태도

섭식태도는 여자 청소년의 부정적 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34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 6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된 섭식태도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는 2개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의 검사는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한 섭식 태도 검사(Eating Attitude Test: EAT)의 간략형(EAT-26)으로 제작(Garner, Olmsted, Bohr & Garfinkel, 1982)된 섭식태도 검사이다. 하위요인은 절식,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섭식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 '먹고 난 다음 심하게 죄책감을 느낀다', '체중조절을 위해 다이어트용 음식을 먹는다', '음식이 나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든다' 등 26문항이다. KEAT-26은 이민규 등(1998)이 표준화하였고 2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이상 섭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Garner et al., 1982)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상태를 감별해내는 등 섭식과 관련한 임상 및 연구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인 섭식태도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고 국내 연구에서 .85(이상선, 오경자, 2003)의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섭식장애에서 신경성 폭식증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고 섭식장애의 전구증상으로서 이상섭식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Pyle et al., 1983; 오숙현, 1994; 김미선, 2015)를 참고해 신경성 폭식증의 행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5문항을 추가하였다. '체중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토하거나 설사약, 이뇨제, 관장 혹은 굶거나 한다', '스스로 먹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행동특성 관련 문항으로 가정한 KEAT-26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를 보였고, 폭식 행동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1, 전체는 .88이었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Barber(1996)가 고안한 자기보고식 부모심리통제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를 사용하였다. 이는 전숙영(2007)이 번안하고 최명진(2010)의 연구에서 타당화를 확인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척도의 문항들은 일련의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묘사하는 것들이다. 하위요인으로 언어적 표현의 제약(3문항), 감정의 무효화(3문항), 개인적 공격(3문항), 죄책감 유도(2문항), 애정철회(3문항), 기괴한 정서적 행동(2문항)을 포함한다. 문항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기분이 어떤지를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럼 행동하신다', '내가 아버지(어머니)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내가 실망시키면 나를 쳐다보지 않으려 하실 것이다' 등 총 16개의 문항을 각각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문항별 4점 척도로 구성되어 문항에 대한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로 응답한다.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각각 총 64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느끼기에 부모가 자신에게 죄책감유발, 애정철회와 같은 심리적 조종과정을 통해 자신의 발달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교묘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다양한 표집에 따라 .72 ~ .84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의 심리적 통제와 모의 심리적 통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과 .89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였다.

3) 부적 정서 척도

부적 정서는 Watson, Clark와 Tellegen(1998)이 개발하여 이현희 등(2003)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정적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ale: PANAS)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현희 등(2003)의 타당화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부적 정서로 인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부적 정서 요인만을 채택하였다. 박연경(2014)은 부적 정서에 대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 정서를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우울 및 불안정서와 예민 관련 부적 정서를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끄러운', '마음이 상한', '죄책감 드는', '겁에 질린', '신경질적인' 등의 정서를 표현하는 형용사로 구성된 부적 정서 11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본 연구의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는 .86이었다.

4) 정서조절곤란 척도

정서조절곤란은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하였으며 정서조절의 포괄적인 정의를 제안하고 이를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인 한국판 정서조절 곤란 척도(K-DERS)를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조용래(2007)가 번안하였고 국내에서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낀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 '화가 나거나 기쁘면 집중하기가 힘들다', '화가 나거나 기쁘면 행동이 통제가 안된다' 등 총 36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식으로 평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K-DERS의 하위요인은 원판과 마찬가지로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은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과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이다. 조용래(2007)의 연구 결과, K-DERS의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이었고 6개의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80~.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이었다.

3. 자료 분석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2.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을 보면, 첫째, 기초통계로 연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변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의 민감성, 해석 가능성,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χ^2 , TLI, CFI와 RMSEA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 곤란의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상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홍세희, 2009).

III.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 정서, 정서조절곤란,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 변수들의 상관관계,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 <표 1>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부모 심리적 통제는 각각 부적 정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조절곤란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 = .32, p < .001, r = .34, p < .001, r = .35, p < .001$).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곤란이 높을수록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를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 정서, 정서조절곤란, 이상섭식태도를 구성하는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부족은 정서적 명료성 부족과만 부적 상관($r = -.15, p < .01$)을 가졌고 다른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그 외의 측정변인들은

상호간에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 정서 및 정서조절곤란, 섭식태도들 간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변 인	1	2	3	4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	-	-	-
2. 부적 정서	.32***	-	-	-
3. 정서조절곤란	.34***	.59***	-	-
4. 이상섭식태도	.35***	.40***	.37***	-
M	52.98	20.22	71.91	37.04
SD	15.51	6.90	18.26	17.46

주. N = 468. *** $p < .001$.

<표 2> 측정변인 간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부의 심리적 통제	1.00											
2.모의 심리적 통제	.83***	1.00										
3.우울 및 불안	.27***	.30***	1.00									
4.예민	.26***	.29***	.62***	1.00								
5.충동 통제 곤란	.27***	.30***	.47***	.43***	1.00							
6.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03	.05	.05	.03	.08	1.00						
7.비수용성	.24***	.27***	.52***	.38***	.63***	.08	1.00					
8.정서적 명료성 부족	.31***	.33***	.48***	.39***	.50***	-.15***	.52***	1.00				
9.전략접근 제한	.32***	.33***	.50***	.42***	.70***	.05	.64***	.52***	1.00			
10.목표지향 행동 어려움	.26***	.25***	.45***	.36***	.68***	.08	.50***	.44***	.68***	1.00		
11.섭식절제	.32***	.31***	.37***	.30***	.32***	.14***	.36***	.29***	.34***	.25***	1.00	
12.폭식행동	.29***	.31***	.38***	.34***	.39***	.05	.33***	.28***	.40***	.36***	.70***	1.00
M	1.64	1.68	1.97	2.15	2.01	3.52	2.07	2.21	2.02	2.79	1.30	.64
SD	.52	.49	.74	.70	.93	.71	.91	.96	.83	1.13	.57	.70

주. N = 468. *** $p < .001$.

2. 측정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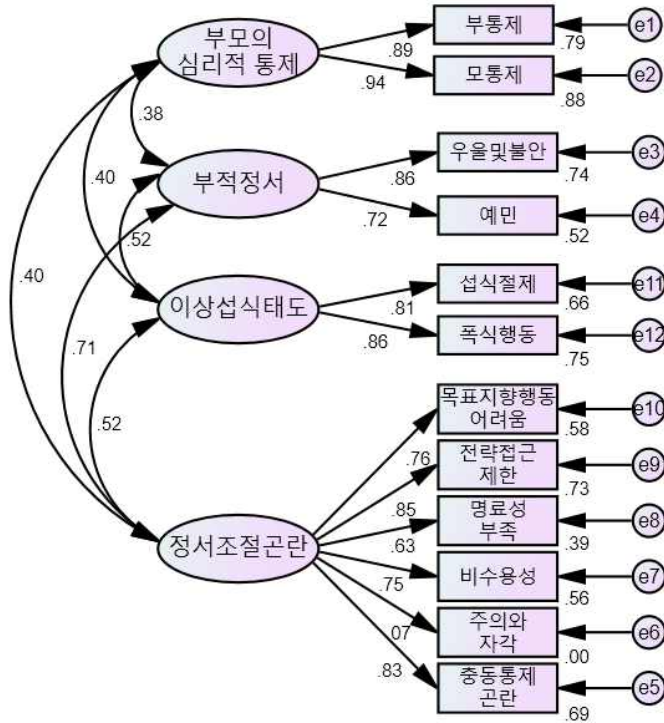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검증에 앞서 측정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적합도 지수 RMSEA=.066, GFI=.951, NFI=.948, CFI=.99로 나타났다. RMSEA는 .08이하일 때 괜찮은 적합도,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며, GFI, NFI, CF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므로(홍세희, 2000),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표준화 부하량을 조사한 결과, 정서조절 곤란을 측정하는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변인의 표준화 부하량이 .07로 낮았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모든 측정변인의 표준화 부하량은 .65이상으로 높았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정서조절곤란의 측정변인 중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하위요인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측정변인	B	SE	β	C.R.	p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의 심리적 통제	1.00		.89		
	모의 심리적 통제	1.00	.7	.94	15.23	***
부적 정서	우울 및 불안	1.00		.86		
	예민	.80	.06	.72	13.53	***
이상섭식태도	섭식절제	1.00		.81		
	폭식행동	1.32	.10	.86	13.21	***
정서조절곤란	목표지향행동 어려움	1.00		.76		
	전략접근 제한	.82	.04	.85	18.92	***
	명료성부족	.70	.05	.63	13.45	***
	비수용성	.79	.05	.75	16.37	***
	정서의 주의와 자각 부족	.05	.04	.07	1.36	.175
	충동통제 곤란	.90	.05	.83	18.46	***

N = 468.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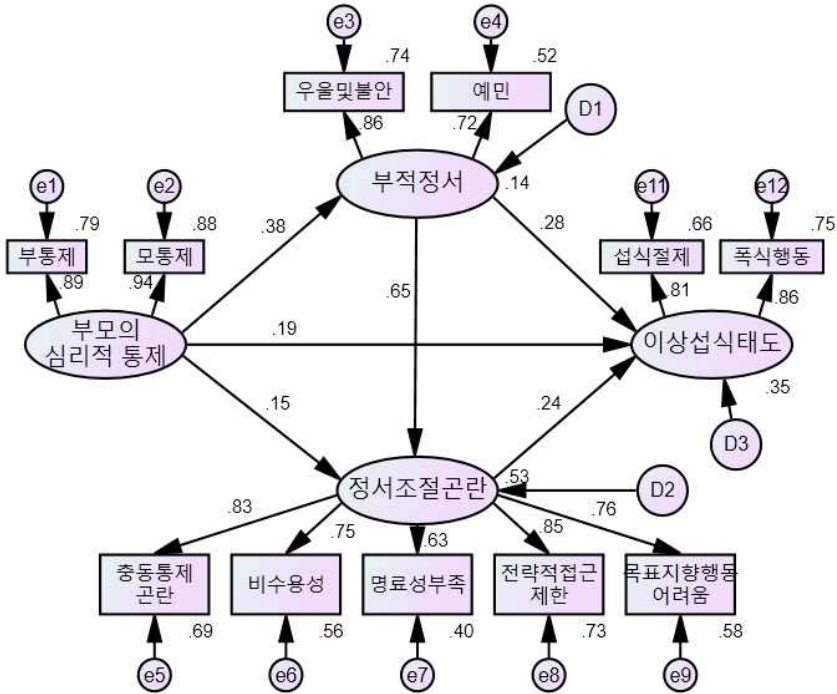
$\chi^2(df=48)=146.127, p=.000, RMSEA=.066, GFI=.951, NFI=.948, CFI=.964$

[그림 2] 측정모형의 모수치 측정결과

3.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서조절곤란, 부적 정서, 여자청소년의 섭식태도와의 관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이 적합하게 나타남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정서조절 곤란, 부적 정서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 심리적 통제와 모 심리적 통제의 2개의 측정변인을 갖는 외생잠재변수로 설정하고, 정서조절곤란과 부적 정서, 청소년의 이상섭식태도를 내생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변수들 간 경로관계를 설정한 후 최대우도법(Maximum-likelihood)을 사용하여 분석해보았다.



$\chi^2(df=28)=97.296, p=.000, RMSEA=.058, GFI=.962, NFI=.965, CFI=.978$
 [그림 3] 연구모형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RMSEA가 1이하이며, GFI, NFI, CFI가 모두 .9이상으로 양호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충족하였다. 구조모형의 분석결과와는 <표 4>와 같다.

<표 4> 구조모형 분석 결과

경로	B	S.E.	β	C.R.	p	SMC (R2)
부모의 심리통제 ⇒ 부적정서	.52	.07	.38	7.15	***	.144
부모의 심리통제 ⇒ 정서조절곤란	.29	.09	.16	3.32	***	.526
부적정서 ⇒ 정서조절곤란	.89	.09	.65	10.18	***	.349
부모의 심리통제 ⇒ 이상섭식태도	.19	.05	.19	3.69	***	.349
부적정서 ⇒ 이상섭식태도	.20	.06	.28	3.29	***	.349
정서조절곤란 ⇒ 이상섭식태도	.13	.04	.24	3.06	**	.349

p<.01, *p<.001.

구조모형 분석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고, 모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변인(개념)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 정리

결 과	원 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적 정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38*		.38*
정서조절곤란	부모의 심리적 통제	.16*	.25*	.40**
	부적 정서	.65**		.65**
이상섭식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	.19**	.20*	.40**
	부적 정서	.28**	.16*	.44**
	정서조절곤란	.24*		.24**

* $p < .05$, ** $p < .01$.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 정서에 대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유의한 직접효과($\beta = .38$, $p < .05$)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에 대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유의한 직접효과($\beta = .16$, $p < .05$)와 부적 정서를 매개로 한 유의한 간접효과($\beta = .25$, $p < .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적 정서도 정서조절 곤란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beta = .65$,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섭식태도에 대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유의한 직접효과($\beta = .19$, $p < .05$)와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간접효과($\beta = .20$,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적 정서도 이상섭식태도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beta = .28$, $p < .01$)와 정서조절 곤란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간접효과($\beta = .16$,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곤란은 이상섭식태도에 유의한 직접효과($\beta = .24$, $p < .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는 매개변인을 포함한 모든 경로의 효과가 함께 측정된 값이 제시되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 곤란의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두 매개변수의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Macho와 Ledermann(2011)이 제안한 가상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6>의 개별 간접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통제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22~.4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32, $p < .0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정서의 매개효과도 95% 신뢰구간에서 0(.29~.44)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37, $p < .05$).

<표 6> Phantom 변인을 이용한 개별 간접효과 검증 결과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	Low
부모의 심리적통제(X) ⇒부적 정서(M1) ⇒이상섭식태도(Y)	.32*	.22	.40
부모의 심리적통제(X) ⇒정서조절곤란(M2) ⇒이상섭식태도(Y)	.37**	.29	.44

* $p < .05$, ** $p < .01$.

이로써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 곤란을 매개로 하여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부적 정서는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되었다.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 곤란의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적 정서를 매개하여 이상섭식태도로 가는 경로에서 부적 정서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이상섭식태도와 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이 올바른 섭식태도를 갖도록 돕기 위하여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섭식장애의 전구증상으로 예측 가능한 이상섭식태도와 가족 요인으로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 불안을 포함한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 곤란을 유추하였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곤란을 각각 매개로 하며 부적 정서와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를 통해 여자청소년의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전반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상관분석에서 여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 정서, 정서조절곤란 및 이상섭식태도는 각각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기대와 요구를 강압적이고 통제적으로 조종할수록 여자 청소년은 이상섭식태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신의 표현을 억압하고 자율성을 통제한다고 여자 청소년이 느낄수록 부적 정서를 경험하거나, 자신의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섭식태도의 정적 상관을 밝힌 연구결과(김지현, 2014)와 가족 내에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양식과 섭식행동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정영선, 2005; 이연희, 2010), 부모 자녀 간 애착과 섭식태도와

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혜원, 이지현, 2015)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적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이는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이 크다는 조은주와 이은희(2013)의 연구, 모의 심리적 통제가 클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신희수, 안명희, 201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의 통제수준과 정서조절 곤란과의 관계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여고생이 정서조절곤란과 우울을 겪는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김소아, 강민주, 2013)를 지지한다. 부모가 양육태도에서 자녀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처벌하거나 죄책감을 유도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서 반응으로 자녀를 대할수록 여자 청소년은 우울감과 불안을 호소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각종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이 많은 시기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기 취약하다. 가정 내 부모의 미묘한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부적 정서와 매우 상관이 높으며 사춘기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지지하는지 부모양육태도를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주요한 부모교육의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검증된 부적 정서와 이상섭식태도와의 관계는 부적 정서가 폭식삽화의 유발요인으로 언급되는 연구와 그 결과가 일치하였다(소원현, 2009; 전주리, 2011; Heatherton & Baumeister, 1991). 그리고 우울, 불안, 분노, 외로움과 같은 부적 정서가 섭식을 기대하게 하고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구(차마리아, 2012), 섭식장애군 여자 청소년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을 밝힌 임지영(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였고, 정서조절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폭식 및 섭식장애가 증가하는 것으로 언급한 연구들(이미현, 2009; Mills et al., 2015)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우울하거나 불안, 예민해질 때 폭식이나 식사를 절제하는 등의 역기능적인 섭식행동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나 상담 장면에서 여자 청소년이 섭식절제나 폭식행동을 보이거나 호소한다면 그들은 우울, 불안, 정서적 예민함과 같은 강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그들의 역기능적 섭식행동에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거나 정서적으로 수용, 공감을 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적 정서를 매개로 하여 이상섭식태도를 설명하고 더불어 부적 정서는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이상섭식태도를 설명한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소원현, 2009; 조소현, 2004; 최호영, 이지연, 장진이, 2011)중 에서 폭식행동 삽화가 부적 정서에서 유발된다고 제안한 부적 정서모델과도 일치한다.

사춘기 자녀에게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죄책감을 유도하는 이중적인 표현방법으로 자

녀를 조종한다면 자녀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경험과 폭식 및 절식행동을 보이는 이상섭식태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태도에 교육 및 치료적으로 개입할 때 부적 정서를 상담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해소하고(김영근, 김창대, 2015)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서의 대처방식을 이상섭식태도와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으로 발전시키지 않도록 정서 대처방략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지적인 재구조화를 통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섭식관련 임상적 증후군으로써의 이상섭식태도 및 섭식장애에 관한 연구가 주로 여대생을 위주로 연구하였던 것과 달리 일반 여고생들에게 적합할 수 있는 섭식태도를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기 여학생의 이상섭식태도를 확인하여 점검하고 그 관련 요인을 가정하여 검증한 것이며 섭식장애로의 발전을 막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둘째,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태도가 주로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인지왜곡에서 기인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자녀의 이상섭식태도의 요인을 부모의 양육행동의 측면을 살펴보고 부모교육의 주제로 제기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주로 연구하거나(공성숙, 현명선, 2002)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일치하지 않았던 일부의 연구도 있었다(김현아,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의 심리적 통제가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고(최정인, 2015) 이는 자녀를 지지하고 자녀의 정서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양육환경에 있어 부와 모가 동등하게 중요함을 알려준다.

셋째, 본 연구는 최근에 정신병리의 원인으로써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들과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이면서 치료적 개입에서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김영근, 김창대, 2015; 이미현, 2009; 이지영, 권석만, 2006; Whiteside et al., 2007).

이러한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몇 가지 제한점은 남아 있으며 이를 논하고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 중 임상집단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여자 청소년으로서 중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표집과 성별이 다른 표집 대상으로 확대되지 못한 점이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이상섭식태도 중 폭식행동이 신경성 폭식증과 그 특성에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가 비교적 잘 기능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뤄졌으나 임상집단에서도 본 연구 결과가 적용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 시점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 정서,

정서조절곤란 및 섭식태도를 측정함으로써 인과적으로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단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이상섭식태도를 보이는 청소년의 변인에 대한 다양한 탐색을 제안한다. 현재 이상섭식태도에 대한 예방 및 치료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다루는 행동주의적 기법과 신체상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및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는 인지행동적 치료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공성숙, 1997; 김선정, 2005). 하지만 섭식장애가 만성적이거나 섭식장애군 환자의 치료가 중단 혹은 재발이 잦은 현재 치료 실정을 고려한다면 이상섭식태도의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정서와 관련한 특성을 폭 넓게 탐색하고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교육 및 치료적 함의는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태도가 가족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서 부적 정서와 정서경험의 대처방식인 정서조절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상섭식태도의 예방과 치료적 개입의 방향으로 부모의 양육환경과 청소년의 부적 정서, 정서조절이라는 심리정서 적응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공성숙(1997). 폭식행동 집단의 식이행위와 생리적 변인에 대한 인지행동 집단치료의 효과. 박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공성숙, 현명선(2002). 섭식장애 환자와 모녀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1(2), 249-259.
- 교육부(2015).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발표자료.
- 권석만(2013). **현대 이상심리학 제2판**. 서울: 학지사.
- 김규민(2000). 청소년의 섭식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지역 여고생의 신경성 섭식장애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김기덕(2007). 여자 청소년들의 섭식장애와 관련 요인.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미선(2015). 부모애착과 성인 애착이 대학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김민정(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선정(2005). 폭식행동을 보이는 여고생을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신체불만족,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소아, 강민주(2013).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 고등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5), 61-77.
- 김영근, 김창대(2015). 상담과정에서 정서의 활성화 및 반복적 수용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상담학연구**, 16(6), 1-23.
- 김영신, 공성숙(2004). 여자 청소년의 체중조절행위, 섭식장애증상, 우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3(3), 304-314.
- 김정안(2012). 성인애착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충동성과 감정표현불능성향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김정연(2011). 여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불만족과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김정옥(2000). **섭식장애: 날씬한 몸매를 위한 처절한 투쟁**. 서울: 학지사.
- 김지현(2014). 지각된 부, 모의 심리통제가 여대생의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불안애착과 미성숙한 방어기제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김현아 (2015).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정서조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자녀 애착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혜인(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혜원, 이지연(2015). 여자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정서적 섭식행동: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37-60.
- 김혜영(1999).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남상인, 박경애, 김원중, 김순진, 이정운, 이재규, 손규진(1993). **청소년 다이어트행동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성연, 이은경(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18(4), 101-123.
- 박연경(2014). 부정정서가 대학생의 습관적 쇼핑과 폭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매개.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박지현(2013). 여대생의 사회지향성, 정서조절 곤란, 폭식행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소원현(2009). 부정 정서가 신경성 폭식자의 과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419-43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0). 2010년 청소년기 잘못된 비만 인식, 치명적인 식사장애 우려 보도자료.
- 신미연, 이정운(2012). 외모에 대한 지각된 사회문화적 영향과 다이어트 행동의 관계: 신체상과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2), 183-198.
- 신희수, 안명희(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안명희(2010).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91-710.
- 오숙현(1994). 여대생의 섭식장애행동과 부모와의 애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우미경, 박영신(2012). 초등학교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57-174.
- 이경희(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이미현(2009). 부정적 정서와 폭식행동의 관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민규, 이영호, 박세현, 손창호, 정영조, 홍성국, 이병관, 장필립, 윤애리(1998). 한국판 식사태도 검사-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s Test-26: KEAT-26) 표준화 연구 I: 신뢰도 및 요인분석. **한국정신신체의학**, 6(2), 155-175.
- 이상선(2007). 폭식 행동의 이중-경로 모형에 관한 검증: 부정 정서 경험 측정과 부정 정서 조절

- 기대 구분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883-902.
- 이상선, 오경자(2003). 외모관련 사회 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27-940.
- 이연희(2010). 폭식 행동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은주(2009). 여자 청소년의 섭식장애증상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2), 307-326.
- 이지영, 권석만(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이하연(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임지영(2009).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 위험성이 높은 여자 청소년들의 MMPI-A 프로파일양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299-308.
- 장희순(2004). 대중매체가 신체상의 지각과 상태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전주리(2011). 정서조급성과 폭식행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전숙영(2007).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정영선(2005). 청소년의 섭식장애와 가족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85-706.
-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성과 또래 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정희진, 이종숙(2011). 여대생의 섭식태도와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27, 37-45.
- 조소현(2004). 정서강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자기 파괴적 충동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식행동과 중독적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조용래(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조은주, 이은희(2013).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24(1), 35-70.
- 차마리아(2012). 정서조절곤란과 섭식기대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최명진(2010). 심리적 통제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최정인(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최진숙, 조수철(1990). 소아 불안의 측정: 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3), 691-702.
- 최호영, 이지연, 장진이(2011). 정서강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여고생의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579-1597.
- 현지은(2010).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의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Bootstrapping 방법의 다양한 적용. 2009 구조방정식모형 주제별 세미나 자료집.
- 황미진(2007). 여자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103-117.
- APA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IV-T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Stoltz, H. E., Olsen, J. A., Collins, W. A., & Burchinal, M.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v-147.
- Barlow, D. H., Allen, L. B., & Choate, M. L. (2004). Toward a unified treatment for emotional disorders. *Behavior Therapy*, **35**(2), 205-230.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NY:

Hoerber.

- Burt, V. K. & Hendrick, V. C. (2005). **여성의 정신건강**. (남범우, 서정석, 류은정, 최귀순 역). 서울: 하나의학사(원전은 2001에 출판).
- Fosha, D. (2000). *The transforming power of affect*. New York, NY: Basic Books.
- Garner, D. M., & Garfinkel, P. E. (1979). The eating attitudes test: An index of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9(2), 273-279.
- Garner, D. M., Olmsted, M. P., Bohr, Y., & Garfinkel, P. E. (1982). The eating attitudes test: Psychometric features and clinical correlates. *Psychological Medicine*, 12(4), 871-878.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Greenberg, L. (2002). *Emotion-focused therapy: Coaching clients to work through feeling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Gross, J. J. (1999). Emotion regulation: Past, present, future. *Cognition and Emotion*, 13(5), 551-573.
- Heatherton, T. F., & Baumeister, R. F. (1991). Binge eating as escape from self-awarenes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86-108.
-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Macho, S., & Ledermann, T. (2011). Estimating, testing, and comparing specific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phantom model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16(1), 34-43.
- Mazzeo, S. E., & Espelage, D. L. (2002).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s in female undergraduates: An investigation of the mediating role of alexithymia and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1), 86-100.
- McCabe, M. P., & Vincent, M. A. (2003). The role of biodevelopment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disordered eating among adolescent males and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1(4), 315-328.
- Mills, P., Newman, E. F., Cossar, J., & Murray, G. (2015). Emotional maltreatment and disordered eating in adolescents: Testing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Child Abuse & Neglect*, 39, 156-166.

- Mintz, L. B., & Betz, N. E. (1988).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eating disordered behaviors among undergraduates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3), 463-471.
- Minuchin, S., Rosman, B. L., & Baker, L. (1978). *Psychosomatic families: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maha, J. (2004).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emotion regulation: EMDR and bilateral stimulation for affect management*.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 Palmer, R. L., Oppenheimer, R., & Marshall, P. D. (1988). Eating-disordered patients remember their parents: A study using the parental-bonding instru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7*(1), 101-106.
- Polivy, J., & Herman, C. P. (2002). Causes of eating disord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187-213.
- Pyle, R. L., Mitchell, J. E., Eckert, E. D., Halvorson, P. A., Neuman, P. A., & Goff, G. M. (1983). The incidence of bulimia in freshm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3), 75-85.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oenens, B., Vansteenkiste, M., Vandereycken, W., Luyten, P., Sierens, E., & Goossens, L. (2008).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eating-disordered symptoms: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 possible intervening variable.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6*(2), 144-152.
- Stice, E., & Agras, W. S. (1999). Subtyping bulimic women along dietary restraint and negative affect dimen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4), 460-469.
- Striegel-Moore, R. H., Silberstein, L. R., & Rodin, J. (1993). The social self in bulimia nervosa: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perceived fraudul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2), 297-303.
- Svaldi, J., Griepenstroh, J., Tuschen-Caffier, B., & Ehring, T. (2012). Emotion regulation deficits in eating disorders: A marker of eating pathology or general psychopathology? *Psychiatry Research, 197*(1), 103-111.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 Watson, D., Clark, L.,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Whiteside, U., Chen, E., Neighbors, C., Hunter, D., Lo, T., & Larimer, M. (2007). Difficulties regulating emotions: Do binge eaters have fewer strategies to modulate and tolerate negative affect? *Eating Behaviors*, 8(2), 162-169.

Wiser S., & Telch C. F. (1999).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for binge-eating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6), 755-768.

* 논문접수 2017년 11월 4일 / 1차 심사 2017년 12월 10일 / 게재승인 2018년 3월 9일

* 이정선: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경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상담 및 임상심리전공 박사과정에 있다.

* E-mail: amadas17@hanmail.net

* 김영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서심리와 상담, 치료적 관계, 집단상담, 상담의 과정 및 성과이다.

* E-mail: ykkim@inje.ac.kr

Abstract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Abnormal Eating Attitudes of Female Adolescents: Mediating Roles of Negative Affect and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Ha, Jeongseon**
Kim, Youngk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affect and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eating attitudes of female adolescents. The survey included 468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City and Gyeongnam province, and self-reports data were collected for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negative affect,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and eating attitude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hypothesi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negative affect,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and eating attitudes were affirmatively correlated.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howed the direct influences on eating attitudes.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eating attitudes was mediated by negative affect and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Additionally, negative affect and eating attitudes was mediated by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Based on the results,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he study.

Key words: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negative affect,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eating attitudes of female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 This manuscript is a truncated recapitulat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 thesis.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 Second author,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je University